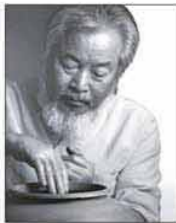


한국전통 도자기 명장 서광수 60주년 전시회 개최



명장 서광수

평생을 '불의심판'을 기다리며 마음조리고 살아온 이시대 최고의 도예가 서광수 한도요 대표가 5월 25일부터 6월 2일 까지 서초동 예술의전당 제4전시장에서 도예인생 60주년 기념 전시회를 열고있다.

독창적인 작품세계로 한국도자기의 아름다움과 다도문화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서광수 명장은 불과의 씨름속에서 묵묵하게 한점 한점 정성을 다해 쓰다듬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혼불을 지피고 영혼을 불살라 창조자의 진정한 가치를 불어넣기 위한 흥과의 끝없는 씨름을 한지 60년의 세월을 인내와 고난의 연속이였는지 참으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전에서 태어나 무형문화재 사기장 41호이자 2003년에 도자기 공예분야 대한민국 명장367호로 선정된 서명장은 전통가마방식을 고집하며 우리나라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서명장은 “도자기는 곧 내 인생이다. 조선백자의 품격 높은 위상에 가식없이 작품하나 하나에 깊숙이 용해되어 그 생명이 잉태되도록, 내 자신 도공으로서의 삶에 보람이 느껴질 수 있게 영원히 이 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난당 김영순 작가. 달 항아리의 아름다움을 회화로 표현



김영순 화가

한 화가가 어느 특별한 소재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해 일관된 관념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림의 본질(本質)은 소재 및 대상의 다양성과 관계없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보여 지기 위한 것이 아닌 내면의 세계를 표출해 내며 달 항아리의 신비로움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난당 김영순 화가의 작품은 그리려는 대상을 재해석해 모두의 찬사를 받는다. 수년간 이어오고 있는 '기적'시리즈는 일상속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기까지 갖게 되는 행복한 과정을 담았다.

뛰어난 색채감각과 그것을 부추기는 세련된 마티에르 감각이 은밀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릴리프 도입이 화면에 그 어떤 시적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탁월한 미적 감각과 남다른 심미안으로 독창적 작품세계를 구축한 김영순 작가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시대인 요즘 달 항아리 작품에서 스마트폰으로 콜라보하여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고 밝혔다. 김작가는 5월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 되는 조형아트서울에 참가하였다.



기적 · 72.7*72.7cm · 오브제, acryl and, oil, on, hemp

청계 양태석 화백 "예술은 내 삶의 전부"



양태석 화백

한국화단의 중진 청계 양태석 화백이 지난해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 화업 60주년 겸 팔순 초대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최근 집필을 마친 장편소설 "화가는 어디로 가야하나"의 출판기념회도 함께 진행 하였다.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 있는 양태석 화백은 조창기부터 '장수, 부귀, 행복, 사랑, 희망, 평화를 주제로 작품을 해오다 근작에는 '우주'를 주제로 새로운 조형세계를 모색하며 순수 추상세계를 넘나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양 화백은 은둔자적 품성, 참정적인 내심성으로 자연에 대한 관조의 자세로 추상과 구상사이를 종횡하며 화면에서 군더더기를 제거해 나간다는 필법으로 서의화평, 풍경의 시각을 넘은 심상적작가로 진솔함이 묻어난 질박한 붓질은 묘사적 재현보다 호소력 있는 화가라는 평이 두툼한 색감 안에 감춰있는 듯하다.

“문화는 소중하고 예술은 귀중하다. 또한 예술은 영원한 것이다.” 예술은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는 청계 양태석 화백의 의미 있는 해석이다.



안면대기 162.2x130.3cm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추구하는 이 시대 참 봉사인



양순종 이사

양순종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 54년간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온 양순종 이사. 그는 어린 시절 가난으로 신문배달을 하고, 중학교 시절에는 그림을 배우면서 그림을 팔아 학비와 생활

비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며 지수성가한 인물이다. 군 제대 후 의용소방대에 들어가 본격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시작한 양순종 이사는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을 비롯해 재해, 재난 피해복구 활동 등에 앞장서며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지켜왔다. 가정형편에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국가유공자에게 나오는 연금 50만원을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장학금과 생필품을 지급하며, 우리사회의 어둠과 그늘진 곳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왔다.

또한, 순종장학회를 설립해 15년간 총 150명에게 5천 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용 마스크500장을 동두천시에 기탁했으며 지난해 겨울 난방 취약 계층을 위해 연탄 1,200장을 기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생활속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친환경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하며 '회용 컵 싫어, 다회용 컵 좋다' 실천다짐 릴레이를 진행중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상, 동두천시민인상 등을 수상한데 이어 5월 26일에는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표창 및 글로벌워브랜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